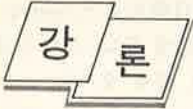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제 1 독서 : 이사 11, 1-10
제 2 독서 : 로마 15, 4-9
복 음 : 마태 3, 1-12

순정이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마태 3, 8).



광야의 소리



전종복 신부 / 송학동 천주교회

오늘은 대림 제 2주일이면서 인권주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가르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마태 24, 24)에 오시는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도록 일깨워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2천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주변 열강들의 흥망에 민족의 존폐가 좌우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는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선각자들의 이념놀이로 파당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문물의 수입으로 야훼 신앙이 희색되었습니다. 방향 잃은 민족의 비극 앞에 하느님의 백성은 마냥 우롱당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팽배한 사회였습니다. 실상가상으로 엄청난 재난(루가 21, 20-24)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백성에게 하느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구세주가 오심을 알리는 광야의 소리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요르단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야 예언자의 후계자다운 복장과(2 열왕1, 8)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대변자처럼 사자후를 토합니다. “회개하여라!” 악을 피하고 하느님께로 귀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생활 전체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야 합니다(마태 3, 8). 더불어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생활·태도를 지녀야 합니다(루가 3, 10-14).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안이한 생각만으로는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쭈정이를 모두 불로 사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세례자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성탄)은 신앙인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판공성사 보았다는 생각으로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타성에 젖은 삶은 무의미합니다.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피와 땀이 요구됩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광야의 소리’를 가슴에 받아들이도록 혼신의 힘을 쏟으십시오.

주님의 오심은 신앙인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기쁨의 달, 12월

모보일(즈가리아)

벽에 걸린 달력이 모두 뜯기고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장을 바라보며 덧없는 세월을 생각 해본다. 한번 가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우리네 삶에 서글픔과 외로움이 밀려든다.

시인들도 12월을 '어두운 12월'로 표현하거나 '쓸쓸한 밤과 같은 12월'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애처로움 탓이리라.

이 때문인가 '가는 해를 잊자.'며 '망년회'라는 이름의 흥청거림이 풍속처럼 번져 그냥 지내면 '못난이'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나이를 훌쳐가는 악귀를 쫓는다고 설날 그믐날 밤, 집안 구석구석에 등잔을 밝히고 새벽닭 울기를 기다렸던 우리 선조들이 짐소하고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올해도 이미 호텔과 이름있는 식당들이 모두 예약됐다고 하니 '부어라 마시어라' 흥청거릴 망년회 작태가 짐작된다.

UR과고를 넘기 위해 피 같은 땀을 흘리며 눈발을 일 구고 전량 수매를 요구하며 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촌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12월은 어떤가.

뭔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12월은 우리의 삶 안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나심을 기다리는 기쁨의 달, 대림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12월은 이 나라에 문민정치를 실현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루게 되어 있어 다른 어느 해보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르게 준비되어야 하겠다.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 성탄 전 4주간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시도록 되어 있다. 첫번은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둘째번은 천주 성부의 최상 권위로 오시는 것이다.

따라서 대림은 성탄뿐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주일부터 전례주년이 시작된다.

전례는 하느님께 구원되어야 할 인간들의 결함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의미다. 곧 교회는 전례를 통해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주재자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며 속죄를 드리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전례가 그리스도의 기다림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12월 한달을 '망년회' 기분에 들떠 대림절의 참뜻을 잊지 말아야겠다. 깊은 잠에 빠져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생활을 하자. 항상 깨어 기도해야겠다.

나자렛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하느님께서 성조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느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날 다시 오실 것을 확신, 용기를 잃지 않고 신뢰 안에 희망을 품고 늘상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올해도 대학입시가 치뤄지는 날 날씨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쌀쌀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다.

수험생들은 물론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보다 더 추울 것이다.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용기와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내자.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험 지옥에서 해방돼 활짝 피어날 교육제도를 어른들이 서둘러 마련해야겠다.

마침내 대통령 선거가 공고되고 본격 유세전에 돌입했다.

대림절 기간 중 치뤄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금권과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탈법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인물을 배격, 떳떳한 정권이 태어나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줄로 생각한다.

숲정이 산책



잘들 본다.

주님이 계시기에

수인들의 어머니



유양자(울리안나) / 동산동 성당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우도의 죽음 직전의 통회의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아무런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단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공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수인들, 그 수인들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유양자(울리안나·50세) 씨. 그의 고향은 전남 순천으로 3남 1녀 중 외동딸로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시절을 보냈었다. 그는 30년 전 전주로 출가, 딸 하나를 두고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다. 원래 개신교엘 다녔는데 성체를 모시고 싶다는 뜨거운 소망으로 인해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였다.

그가 재소자들과 만나게 된 동기는 인척 관계의 일로 교도소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수인들을 보게 되었다. 그후 떨쳐버릴 수 없는 연민으로 수인들을 방문하게 된 것이 86년. 그들의 고민, 출소 후의 생활문제를 알게 된 그는 오갈데없는 출소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출발을 하도록 온갖 사랑으로 보살펴주

었고 자신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배려했으며 다른 일자리도 알선해주곤 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기도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데서 오는 반항으로 술을 먹고 닥치는 대로 부수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미움기보다는 측은하고 더 가엾게 느껴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무한한 사랑뿐임을... 그와 함께 살다간 출소자들은 모두 12명이 되고 지금은 2명만이 함께 생활한다.

그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이 죄의식에 무디어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정신적인 장애자가 되어 살아가며 사회마저 그들을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소망은 출소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출소자의 집을 마련하는 것. 지병인 심장병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수인들만 만나면 신들린 사람처럼 힘이 난다고 말하며 “수인 아들을 돌보는 기쁨은 그 어느 것에도 비길 수 없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모습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의 미소를 만나게 된다.

신자들의 소리

주님을 기다리며

김안젤라

꽤나 오랜 신자생활 동안 참으로 성탄을 맞이하려 준비하고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가. 매년 정신없이 나이만 덧없이 먹는구나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였다.

옛그제 모처럼 해질녘에 시장엘 나섰다. 날씨가 제법 추워서 매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사람들은 추위에 굳어진듯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 사이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겨우 상체만 이끌며 리어커에 잡좌를 팔고 있는 사람 하나가 거리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혼란 풍경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날따라 날이 무섭게 추워선지 유독 눈에 띄었다. 돌아가면 몸 녹일 따뜻한 방이나마 기다리고 있을런지, 거스름돈을 마다하는 내게 그가 ‘나중에 커피 한 잔 합시다.’ 하며 해맑게 웃어 보인다.

문득 주님이 하필 이 추운 날에 오신 이유를 알 듯 하였다. 춥고 배고프다는 말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우리가 가장 주님을 기다릴

때는 언제일까? 춥고 배고프고 병들었을 때가 아닐까. 나는 따뜻한 방과 넉넉한 음식 속에 포만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려 보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정말로 살아 있는 주님의 한 지체였다면 다른 부분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 되었으련만 내 쪽은 마비되었거나 죽어 있었다. 아까 그 사람의 하반신이 육체적으로 마비되었듯이.

점점 더욱 추워져 가는 이때, 참으로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님을 기다려본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꼭 오셔야 할 춥고 배고프고 병들어 있는 이들과 더불어.



숲정이 20주년을 맞이하여

성년을 넘긴 숲정과 숨은 이야기들

한상갑(바오로)/평화동 성당

* 국어선생님이시죠?

20년 전에는 전주시내에 본당이 여섯(중양·노송동·덕진·복자·서학동·진동)이었다. 그때 진동, 중양 등 큰 본당에서는 32절 크기의 4쪽짜리 주보를 내고 있었다. 기왕이면 6개 본당이라도 합동으로 주보를 낼 수는 없을까? 이것이 교구보 탄생의 계기를 만들었다.

필자는 1972년 봄, 당시의 본당신부님(김재덕)께 상의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합동주보는 좋은데,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능력도 부치는 주제에 겁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리고, 전주시내 6개 본당에서 편집위원이 뽑혔다. 이렇게 해서 그해 대림 첫주일에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편집실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터라, 필자가 근무하는 해성학교가 연락처 구실을 했다. 원고 보낼 곳도 그리하고 시골 공소에 숲정이 보내기 운동 독지가 모집 연락처도 당연히(?) 해성학교였다. 어쩌다 문외한이 편집인이 되고 보니 더러는 국어선생님이냐고 묻기도 했다.

* 긴급조치 9호 위반?

숲정이가 탄생한 1972년은 10월 유신 바로 직후였다. 유신 선포 이후 몇몇 사제들은 구타당하고, 연행되고, 끝내는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물론 지금도 옥고를 치루고 있지만). 당시 숲정이는 어느 대중매체도 활자화하지 못하는 3·1사건 공판 방청기를 실어 정의로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1977년 6월호 경향잡지는 '정의와 평화의 추구-고난을 대전제로 한 교회의 사명 실천' 제하의 기사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숲정이는 이 글을 1977. 6. 26. 자 제240호 3면에 그대로 옮겼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긴급조치 9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전에도 우체국에서의 발송 사고 등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문제로는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글귀만 검정 매직 잉크로 지우기로 했다. 어디에서 옮겨 적었는가는 문장의 말미에 또렷이 적어 놓았으니까.

10.26사태 이후에는 계엄 당국의 검열에 시달렸다. '강론, 요십이, 숲정이, 산책, 소리'가 사정없이 난도질을 당했다. 그뒤 광주에서는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때 숲정이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라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단 두 줄의 기사와 숲정이가 산책, 그리고 소식만을 실어 무언의 항의를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숲정이에 관련한 필자로서 그간 활자화되지 않은 숨은 이야기들을 밝히는 것으로 20주년을 축하한다. 많은 분들의 노고와 협조를 잊을 수 없지만, 제34호부터 기꺼이 '요십이'와 '숲정이가 산책'(47호부터)을 그려주어 숲정이를 빛나게 해준 김병오 형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애프터 시공의 선두업체
인텔PA·비디오 촬영 전문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님(데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1,254-3003

김금순 (데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김문식(베드로)

풍남문←→송약국 사거리

☎ 82-311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주교단 담화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12월 18일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일입니다. 이념의 벽이 무너진 대변혁의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족 통일을 앞당겨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교단은 "올바른 선거 문화를 창조하자."던 지난 총선 때의 호소를 상기하며, 신앙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거로써 참다운 지도자를 뽑자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는 기본 원칙을 모두가 먼저 개인 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에 앞서 우리 자신의 정치 의식에 대한 냉철한 반성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음에도 선거 후에는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와 금권에 의한 타락선거를 개탄하고 정부의 정통성마저 문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얽매인 채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여 부끄럽지 않은 선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자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이 안고 있는 불신풍조는 정당인이나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당선에만 급급하여 공약들을 남발하거나 불이행한 데서도 비롯됩니다. 여러 후보들이 이미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러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제 제일주의의

정책에 치우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대한 공약 부재를 우리 주교단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와 정당은 당장의 집권만이 아니라 올바른 인간존엄성에 근거를 둔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의 모습을 국민 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왔던 관권선거와 특히 투개표의 부정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엄정 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받음으로써 정치 불신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짐한 선관원들은 명실공히 올바른 선거 봉사자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각종 보도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공정 보도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하여 공명 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들과 특히 젊은이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선의 촉진을 위한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강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모든 신앙인들에게 권유합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통일된 민주국가 건설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1992년 12월 6일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요심이 (1009) 김병오



사무원 모집

- 자격: 고졸 이상(상고졸) 영세 받은 지 3년 이상자
 - 구비서류: 이력서 1통 본당신부님 추천서 1통
 - 모집 인원: 0명
 - 문의: 83-8245
- 평화동 천주교회

무궁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 (전주 원주 대리점)
• 천연세제(주방세제)
• 생이랑(세안·세발 등)
• 아기세(유아용 비누)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각종 가스렌지 시설, 신속 배달

성심가스

태 윤 선(라파엘)
황 해 숙(요한나)

신동 성당 앞
☎ (0653)857-5120~1

축! 개소 대우자동차 무진장 영업소

직원모집 0명 무진장 거주자
소장 유일권(프란치스코)

장수군 계내면 장계 351-4
☎ (0656)353-2357~8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역
☎ 84-7294

뿌리를 찾아서

서학동 성당

- 이웃사촌들과의 어우러진 사랑의 터전 -



서학동은 전주성 외곽지대에 전주 천 상류 남고산성쪽에 위치하여 있는 곳으로 1913년 전주군 우전면에 속해 있다가 1935년 전주부 승격에 따라 완주군에서 분리하여 서정이라 명명, 해방 후인 1946년 7월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학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전주 동남쪽의 관문에 자리한 이곳에 번듯한 성당이 자리잡게 된 것은 1967년의 일로써 10월 28일 성당 대지를 마련하고 다음해인 1월 1일에 박성운(분도) 신부의 부임과 함께 본당이 설립되어 전동 성당에서 분가했다.

'성가정'을 후보로 모신 본당에서는 다음해인 1969년 5월 8일 성당 기공식을 갖고 그해 12월 3일 완공하여

본당신부의 은경축 행사와 함께 축성식을 가졌다. 건평 168평에 기억자로 지어진 특이한 구조로써 2층은 성당, 아래층은 사제관과 회합실로 아담하게 꾸며졌다.

인근에 교육대학과 국민학교 등 교육시설이 자리해 있고 서학(棲鶴)이라는 이름처럼 학이 노니는 경치 수려한 곳이었으며 인심이 후하고 신자간에 특히 우애가 깊은 본당이다. 현재 8대제의 본당신부를 모시면서 그동안 신자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도 크다.

1976년 7월에 빛바랜 성당 외벽을 깨끗하게 단장했고 그해 12월에는 정들었던 상관 신자들을 분리해 내보냈다. 1978년에는 별관 신축과 수녀원 보수공사, 1979년에 사제관 개수공사, 1981년에 성당 계단 증축, 1990

년에 성당 마당 정지 작업 마무리를 통해 협소했던 마당을 넓혀 편리함과 소박함을 고루 갖춘 본당으로 만들어 나갔다.

1987년 1월에 또 한 번 평화동 쪽의 신자들이 분리되어 나가고 현재 신자수는 2,300여명으로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편인데, 본당 내 10여개의 제단체가 설새없이 본당 쇄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23개팀의 성모님의 군대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부유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으나 소박하고 정감있는 본당, 이웃사촌들과 어우러진 삶 속에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명상의 자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화가 승리하지 못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울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더 가까이 들려오는
세례자 요한의 목련 소리
'회개하라'
'주의 길을 뉘으라'
거듭 외치는 그 목소리에
우리는 저마다 귀를 세우고
겨울바람이 신음하는
황량한 들판을 바라봅니다.



믿고 회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구세주 예수를 만날 수 없음을
모든 이에게 깨우쳐주시려고
광야의 목소리가 되신 요한이여
갈길을 보여주신 당신께 감사하며
우리를 깨워 혼드는 그 목소리를
항상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늘 나라를 향한 우리네 삶의 길도
더욱 고르어지게 하십시오.

그릇 혼수 전문백화점
아리랑 그릇

박 희 제(그레고리오)

이리 허영근 약국 골목
☎ 842-4976

베로니카 플라워 슝

방식꽃꽃이회 전북지회
동·서양란, 웨딩부케, 성전꽃이
국 성 회(베로니카)
관동로 보건소 입구
☎ 87-8427, 88-8426

동서로 삼익피아노

종합 악기 판매장
(피아노, 전자올켄, 음향시스템 전문매장)
김 태 우(알풍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역
최 윤경 (유리안나)
이용실·이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교 구 소 식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12월13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때 : 12월12일(토) 오후4시
- 곳 : 교구청 홍보국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12월13일 오전7시
- 곳 : 가톨릭센터 출발

❖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때 : 12월7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크리스마스 선물 판매

- 1매당 120원
- 구입처 : 각 본당사무실

❖ 엄마들을 위한 영화상영

- 때 : 12월21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네번째 동방박사
- 내용 :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은 무엇인가? 페르시아 점성가 아르타 빈은 어느 날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받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보물을 사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네번째 동방박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 회비 : 1,000원

❖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신입생 모집

1. 신구약성서 입문 과정
 - 내용 : 신구약성서 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소유자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서교부·접수 : 93년 1월 20일까지
 - 원서접수마감 : 93년 1월 말까지
 - 원서대 : 3,000원
 - 문의 : (0652)252-3398

성바로 서원

2. 바오로 영성사상 과정
 - 내용 : 바오로 서간 1년
 - 구비서류 : 입학신청서, 증명사진 2매
 - 등록기간 : 93년 1월 말까지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12월13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 84-3231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12월13일 오후1시30분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 212-3233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12월13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 84-2276

❖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 때 : 12월13일 오후2시
- 곳 : 숲정이 성당 수녀원 (0652) 252-9567

■ 권해드리고 싶은 책 ■

• 너와 내가 사랑할 때
양드레 세브/하정옥/성바로출판사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심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너와 내가 사랑할 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기쁨을 더해준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실내 대기오염

대기오염하면 우리는 실외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내의 대기오염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2/3 혹은 3/4 정도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며 또 실내 공기오염이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은 단열재로 쓰이는 석면, 건축자재나 지층(땅)에서 스며드는 라돈가스,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일

산화탄소 등 매우 다양하다. 빌딩 같은 사무실에서는 담배연기와 각종 사무기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오염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내 공기의 악화는 겨울철에 특히 심해진다. 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밀폐시키는데 이로 인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조금 춥더라도 자주 환기를 시키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일시 : 12월27일 오후2시

장소 : 삼랑진 본원

문의 : (0527)52-4241

돈보스고 직업 훈련원생 모집

- 직종 : 기계과(선반 및 기계조립)
- 대상 : 고졸 및 중졸
- 연령 : 만16세-23세 (군필 및 면제자)
- 교육기관 : 1년
- 원서교부 및 접수 : 92.12.8-93.2
- 연락처 : (02) 833-4010

보석 감정, 디자인, 고급 시계 보석전문점 **빛 돌**

이재호(베드로) 구정삼(세실리아)

관동로 사거리 전일관광 옆 ☎ 86-8750~1

성지순례

스위스/로마/바티칸/이스라엘/스페인/산세바스찬/부르드/파리(14박15일)
출발 : 93년1월4일
회비 : 2,600,000원
인솔신부 : 서용복(도마)
접수처 : 이리 54-2202 전주 88-6666

한봉진꿀

깊은산 골짜기에서 채집한 한봉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양주 태(노련조)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소대판 ☎ (0652)83-5671

예인속셈학원

유치부, 국교부, 중등부 수시 모집

강명순(헬레나)

송천국교 정문 앞 ☎ 254-461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성령세미나: 7일~12일 후7시30~10시, 회비-3,000원, ※ 7일(월)-성령세미나 관계로 저녁미사.
 2. 사목회총회: 13일 장엄미사 후, 회장단, 교문, 감사, 각분과부, 차장, 구역, 반회장, 각 단체장께서는 참석바랍니다.
 3. 판공성사일정: 시간-오후3시~6시, 저녁미사 후, 16일-남노 구역, 중노1구역, 17일-중노2구역, 3구역, 아중리, 19일-국민학생 후3시, 20일-중·고생 후4시, 22일-중노4구역, 인후1구역, 23일-인후2구역, 기타.
 4. 영세자 면접: 9일 전10시, 후7시30분.
 5. 모임: ①부녀회(8일 어머니미사 후) ②꾸리아(13일 후2시)
 6. 금주침소: 인후2,3반, 차주침소: 인후4,6반.
- ☐ 지난주 봉헌금: 776,980원 ☐ 교무금: 2,304,5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예비자 집중교리: 14일(월)-19일(토) 저녁7시.
 2. 자선의 날 2차헌금: 13일.
 3. 성당보수공사 헌금: 익명(30만원) 이정민(13만원) 김남희, 박완교(10만원) 이의관, 전정숙, 설점옥, 김순원, 익명(5만원) 김기순(3만원) 김글라라(2만원) 김종연(만오천원) 김부영(1만원)
 4. 회합: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대전회(9일 저녁7:30) ③구역분과회(8일 오전10시) ④안나회(10일 오전10시) ⑤여성분과회(12일 오전10시) ⑥요셉회(13일 공식미사 후) ⑦꾸리아(13일 오후2시) ⑧청년회(13일 저녁미사 후) ⑨해설자모임(13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최육남, 독서-강기연씨 부부, 봉헌-강진혜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449,500원
차주전례: 유두석, 독서-박상기씨 부부, 봉헌-손승환씨 가족, ☐ 교무금: 1,822,44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욱

- * 은인을 찾습니다** : 수녀원 신축에 따른 각종 가전제품, 주방용품, 옷걸이, 침대, 책상, 커튼 등을 기증하실 분.
*** 오늘은 대림 2주일** :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1.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일 첫주(오늘)
 1. 판공일정: 원색장, 색장, 상, 하, 헌신, 어두, 수월-10일(목) 신중, 의암, 마지, 백암, 내정, 서당, 공기, 기타-11일(금) 직장인, 학생-12일(토)
 4.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104만원, 총액-4,023만원.
 5. 성서읽기: 시편21편~30편, 6. 침소봉사: 구세주의 모친Pr.
 7.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정광섭 ②송정자
봉헌-유순천, 유춘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김봉길 ②오귀남
봉헌-한동욱, 황옥섭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291,030원 ☐ 교무금: 38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대림 제2주일! 인권의 날!** (다음주일은 자선의 날 2차헌금 있음)
1. 회의: ①반장회-12월6일(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12월6일(오늘) 오후2시 ③프란치스코3회-12월13일(다음주일) 오후2시 ④성심회-12월13일(다음주일) 오후2시.
 2. 모임: ①울드레아-12월9일(수) 오후7시30분
②전례부-12월17일(목) 오후8시.
 3. 알림: ①판공성사-12월8일(화)~성탄 전일까지 평일미사 전후, (단 일요일과 월요일은 제외) ②성사표-8일(화)부터~사무실에서 배부, 93년도 교무금 신입바람 ③에비자 종합교리-12월15일(화)~18일(금) 오후7시 ④영세자-12월20일(주일) 공식미사 중(영세자, 대부분은 오전9시30분까지 성당집결)
- ☐ 지난주 봉헌금: 718,550원 ☐ 교무금: 1,45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대림 제2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2. 다음주 공식미사 후: 울드레아.
3. 화요일 예비자 모집합니다: 시간-저녁미사 후.
4. 침소봉사: 2구역-1반, 2반, 3반.

☐ 지난주 봉헌금: 645,700원 ☐ 교무금: 3,329,000원

*** 전통**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대림 제2주일(인권의날)입니다.**

1. 금주: ①제수글라라행제회(오후1시30분) 2. 돈·보스코회: (일(수) 오후7시30분, 3. 판공성사: 전10시~12시, 미사 전후(판공성사표 배부시 93년도 교무금 신입바람) 4. 감사합니다: ①글로리아 성가대 정기헌주회에 영적·물질적으로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②교육용 액정비전성금-이금용 다투(일백삼십만원), 김용욱 야고버(이백오십만원), 김정주 미카엘라(일백만원), 교구성서교실(일백만원) 5. 차주: ①자모회(전10시) ②사목회(공식미사 후) ③일치의 모후Cu(후2시) 6. 가족성가경연대회: 12월24일-참가회말자는 사무실에 신청바람, 7. 주일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바르십시오-미달된 교무금은 납부바람.
- ☐ 지난주 봉헌금: 1,927,31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 대림절 자선헌금**: 다음주 사랑의 나눔 2차헌금.

1. 꾸리아: 오늘 후2시30분, 연차 총친목회 준비바람.
 2. 사목회 상임위원회: 10일 저녁8시, 분과별 계획서 중함.
 3. 초·중고 판공성사: 초등부-12일 3시, 중고등부-12일 7시부터, 13일(일) 매미사 전후, 부모님들의 협조바랍니다.
 4. 가정방문: 8일-18구역1반(광전1동,5동) 전9시~12시, 18구역2반(광전2동,6동) 후2시, 11일-19구역2반(우성) 전9시.
 5. 회의: 자모회-9일 12시, 제대회-11일 후3시 성당.
 6. 축! 혼인: 13일 12시, 신앙: 조진범(금주) 신부: 이계심(루시) 부궁화 예식장, 성가대 수고해주시고.
- ☐ 지난주 봉헌금: 1,019,750원 ☐ 교무금: 2,59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갈

1. 사목회: 오늘 오후7시, 구양수(요셉) 동남삼정APT 3동305호.
2. 레지오 단합대회: 오늘 미사 후.
3. 대간회: 11일(목) 오후8시.
4. 성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5. 유아세례: 다음주일 미사 후.
6. 미사안내: 주일(새벽미사) 오전6시.
7. 제대회: 오늘(결산보고) 미사 후.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서미숙, 손인호.
차주전례: 이원자, 독서·봉헌-진경례, 채규운.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오늘 공식미사 중 특별헌금)**
"축" 영세식(오늘 오후2시)
1. 구역봉사자 피켓: 9일(수) 10시30분~후4시(교육관)
 2. 레지오 연총친목회: 13일(일) 오후2시~후6시까지.
 3. 울드레아: 13일(일) 공식미사 후(교육관)
 4. 구역판공성사: 8일(화)~17일(목) 매 미사 전후에 있습니다 (구역별 일정은 게시판 참고하시고 성사표는 8일부터(교무금 카드 꼭 지참요)
※ 사무원 구함(봉사적이고 참신한 미혼여성) 준비-①이력서 ②영세증명서(3년이상) ③기타자격증사본
미사안내: 금주-관델의 모후, 순교자의 모후, 차주-성마리아,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 ☐ 지난주 봉헌금: 1,079,120원 ☐ 교무금: 3,48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①꾸리아 연총친목회-공식미사 후, ②자모, 성모, 성심회-11(금)10시미사 후.
 2. 판공성사: 8(화)저녁7시30분-남양요자, 9(수)오후2시-여배, 만철리, 저녁-한신5반, 10(목)오후2시-안심리, 저녁-태백, 부지개, 11(금)오후-상개리, 삼태동, 저녁-한신1,2반.
 3. 판공성사 보는 날 오후2시에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금주전례: 해설-김홍두, 독서-①임승동 ②문영주
봉헌안내-소철영 부부,
차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김진호 ②신미향
봉헌안내-배희성 부부, 김춘성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255,720원 ☐ 교무금: 6,283,000원